

왜란·호란후 승병 사원복구 투입

양은용 교수 발표

조선중기 양반(1592-1636)후 대단위의 의승군(義僧軍)이 사원건립공사에 투입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원광대 양은용교수는 지난 3일 한국종교학회 추계발표회에서 '왜란·호란 후 불교의 승군의 동향'을 통해 종래의 연구가 승장을 중심으로 인물 중심, 중앙조직 중심의 단편적인 연구에 그친 상황에서 왜란·호란후 승군의 전국적인 동향을



◇양은용교수

전투서 갖춘 군대체제 활용 호국이념 담은 불사에 전력

까' 하는 점에 주목했다.

종래 이에 대한 연구성과가 부족하던 중, 다행히 양반이후에 건립된 전주 승광사의 개창비(伊贈碑;1636)와 최근에 양교수에 의해 확인된 수점의 복장기(服藏記)가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어 이러한 의문이 어느정도 풀렸다는 것.

양반 후 영호남을 중심으로 많은 사원이 재해를 입었고, 각처의 전투에서 많은 의승군이 목숨을 잃었다. 정유재란(1597) 당시 천여명의 의병과 함께 백

5십여명의 승군이 전몰(全歿)한 지리산 석주관(石柱巖)전투 등 곳곳의 항전에서 이때의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양교수는 승군의 막대한 피해가 양난 후에 지리산 화엄사 등 각처의 대대적인 중수공사(重修佛事)를 일으키게 했다고

일어난 법건(法難) 등의 승장이 한결같이 휴정의 제자이다. 승군의 전국적인 규모는 5현경을 헤아리며, 중앙집권적 성격의 조직으로 파악된다는 것이 양교수의 분석이다.

하지만 승군활동의 실상은 전국적인 세력을 결집한 중앙조직만이 전부는 아니었다. 전라좌수영의 이순신 휘하에 의승수군(義僧水軍)조직이 활약했던 것처럼, 중앙조직과는 전혀 별개의 대소 단위가 전국적으로 적지않게 존재했다. 종래 이 방법의 연구가 소홀했으나, 각처의 향토지나 사원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면 상당부분을 새롭게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 양교수의 지적이다. 양교수는 "양반후 대단위의 의승군이 승군활동에서 갖추어진 용어력 아래 극난으로 피폐된 사원을 복원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며 "그들이 마련한 불사의 기틀 배치는 한결같이 사천왕상을 조성해 불국도를 수호하려는 호국이념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종월스님 석사논문 눈길



◇종월스님

출가승려의 연령과 학력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맞게 승가교육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의 논문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동국대 교육대학원 종월스님이 동국대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한 '승가의 교육제도 개선방안'이 바로 그것.

논문에 따르면 대학을 졸업하고 병역의무를 필할 나이인 29세를 넘어 출가하는 비율이 60년대 10~15%, 70년대 19~34%, 80년대 19~43%에서 90년대에는 50~72%로 크게 높아졌다. 출가시 학력도 대졸이상

先 교육 後 득도제 정착 시급 출가연령·학력 높여 승려교육 개선 필요

이 70년대 8~20%에서 80년대 13~28%, 90년대에 들어서는 30%선으로 높아져 고령화·고학력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런 추세에 맞춰 불교계는 승가교육의 환경개선을 통해 수행자의 생활이 사회를 앞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줌으로써 유능한 인재가 인산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 종월스님의 지적이다.

종월스님은 "승가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출가자에게 선교육 후득도의 접근방법을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대학교육을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고, 출가의 나이도 대학을 졸업한 후 병역을 필한 뒤(남자의 경우)로 규정해 29세후에 득도하는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처님 당시의 출가제도를 보면 수행자는 곧 사회적 지도자인 동시에 종교 교육자가 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 스님의 설명.

종월스님은 교육이 곧 집단이 발전하기 위한 근본이기 때문에 불교 발전을 위한 강령교육은 체득과 실천으로 직결되는 수행교육이 병행되어야 하고 교육방법은 현대교육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월스님은 "고학력화 시대에 승려가 지도자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출가를 위한 교육기관의 설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학혁명 당시 승려 활동 있었다

이이화씨 주장

동학농민전쟁 당시의 불교계 역할을 조망하는 학술행사가 전주한 가운데 불교문화연구원(소장 인목)가 지난 10일 현대불교신문사 지하 다원 녹수정전에서 '불교와 동학'이란 주제로 학술강연회를 열어 관심을 모았다.

이날 초청강사로 나온 역사문제연구소 이이화소장은 '불교와 동학·동학농민전쟁'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이소장은 "동학농민전쟁(1894) 당시의 불교의 역할을 조선후기 민중운동과 연결지어 규명해 보려했다"고 말하고 불교와 동학사상과의 관계, 동학농민전쟁시 승려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이소장은 최재우가 32세(1855)에 경주 용담에서 수양할 때 금강산 유림사에서 승려가 《어불어유지서(於佛於儒之書)》를 가지고 찾아와,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듬해 양산 천성산의 승려와 함께 49일 기

도를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초기 동학사상에 나타난 내용은 유교의 수양과 순환론을 주로 강조했다. 주역(周易)의 후천개벽설이나 정감록적 분위기가 가미돼 있다는 지적이다.

조선시대의 승려는 성역(城役) 등 칠반천역(七般踐役)에 속했기에 사회적 지위는 하층민에 속했다. 농민전쟁 당시 승려들은 산적·화적(火賊)과 행동을 같이 하거나, 병란(兵亂) 등을 일으킨 반역세력과 연결돼 동조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 이소장의 분석이다.

불교방송 학술조사단 보고서

경남 남해군 고현면 일대가 팔만대장경을 조판한 곳일 가능성이 크다는 학술조사 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는 불교방송 학술조사단(단장 강한발)이 8개월여간 밝힌 자료들로 엮여져 있으며 문헌, 지표조사 작업의 성과들을 일목요연하게 모은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조사단은 분사도감의 터와 일연스님의 개원성을 접합시키고 있어 이 분야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

다. 보고서는 오는 20일 출간 각계에 배포될 예정이다.

불교방송 학술조사단이 보고서의 출간에 앞서 밝힌 자료에 의하면 남해군 고현면의 대사리 선원리 성산리 일대에서 대장경 조판과 관련 있을 것으로 보이는 유물들이 다량 수습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일연스님이 설립한 정림사도 이 지역에 있었을 것으로 보여 일연스님이 팔만대장경 조판에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

보고서의 문헌조사부문에 '고려대장경의 민족문화사적 가치', '고려대장경 판각장소에 대한 연구성과의 검토', '분사대장도감의 위치와 역사와 분사도감 추정지의 지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지표조사 결과 부류에는 고현면 대사리 주변유적 '대사리 추정 건물지의 현황과 유물', '선원리 추정 건물지의 현황과 유물조사 결과' 등이 56장의 사진과 48종의 도면, 삽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임연태 기자>



◇ 불교방송 학술조사단의 발굴작업 모습

남해군 고현면 일대서 팔만대장경 조판한 듯

못배우고 가난한데 공부필가요

문 저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어느모로 보나 내용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마음공부를 할 수 있는지요. (경기 안양시 안양8동·장운산)

답 부처님께서 일찍이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아니게 됐다 해도 일체가 다 불성인 까닭에 차별이 없습니다. 못났다 잘났다 하는 것이야 세간의 얘기고, 아무런 자기의 근본을 믿는 그 마음의 능력이란 태산을 짊어지고도 힘이 남고, 우주까지도 뚫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못해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한시바삐 더욱 간절하게 단단한 믿음으로써 몸 속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한치의 틀림도 없이 마음의 근본자리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딱 뒤집어 놓거나 바로 세울 수 있는 용기와 패기를 생길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 다리는 절름발이이며, 한쪽 눈은 장님이며, 한쪽 귀는 귀머거리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도리를 보지 못하고 물질에만 살기 때문이죠. 그러나 마음이란 빛으로 말하면 레이저보다 더 합니다. 그러나 어떤 개체,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전체 한 어머니의 불기둥—이름하여 부처

입니다. 꿈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는지요. (서울 강서구 등촌동·주희경)

답 지금 생시에 하는 것도 꿈입니다. 요렇게 하리라 조령계 하리라 하는 것도 꿈이요, 자면서 꾸는 것도 꿈입니다. 그러나 꿈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꿈 잘 꾸어라 하는데 잘 꾸라는 뜻으로도 말하지요? 그러나 꿈을 꾸고 안꾸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문제입니다. 나쁜 꿈을 꾸었으니 나쁜 일이 생기려나 하고 생각하면 나쁜 일이 생기겠죠. 그런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을 바꿔서 이것은 나를 가르치는 꿈, 나를 이끌어 주는 꿈, 좋은 꿈이다 라고 생각을 돌려서 그 꿈을 꾸게 한 자리에 되놓으십시오. 생시에 무슨 생각이 일면 그것도 마음자리에서 나온 것으로 되돌려 놓아야 하듯이 그렇게 말입니다. 꿈 해몽도 실현의 한 생각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이 생각나질 않는대요

문 저는 여러해 전부터 사찰에 다니며 스님의 설법을 많이 들어 온 편입니다. 그런데 뭔가 질문을 드려야 하겠다 하겠음을 먹었다가도 막상 기회가 와도 질문할 겨를이 생각나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문이 나타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신·팩스 보내 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양대승원 대령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 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자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대전 중구 선화동·임춘인)

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풀이 아남을 글에 밀고 되는 것 안되는 것, 높은 것 낮은 것 일체를 다 그 불기둥에 넣어 태워버리십시오. 우주까지 들쭉거리는데 그 도리에 잘나고 못나고 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왜 생사가 있었지요

문 12년이란 줄여 말하면, 무명이 있기 때문에 생로병사가 있고 무명이 없으면 생로병사가 없다는 말인데 석가모니 부처님께 생사는 분명로 무명을 여의신 분인데 어째서 늙고 죽음이 있었는지요? (마산시 합포구 남성동·이지우)

답 부처님께서 그에 대해 말씀을 안하신 게 아니라 말씀을 못 알아 들은 것이군요. 본래 죽는 것은 없고 사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도 보실 줄 아는 분은 생로병사가 '부'라 할 것이고, 보실 줄 모르는 분은 몸통이 죽었으니 죽었다고 할 것입니다. 도리를 모르기 때문이지요. 도리를 알면은 것이 없으니 갈 것도 없는 것을 생각하지서 죽었으니 살았으니 아답입니다. 따지고 보면 뜻이 헤치고 바래지고, 또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훌훌 벗어던지고 새 옷을 갈아 입는 것과 같은데 죽었다 싶었다 할 게 뭐 있었습니까. 도리를 알면 그냥 여한이요.

꿈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문 저는 꿈을 자주 꾸는 편입니다. 가끔은 앞일을 예고하는 듯한 꿈도 꾸는데 그때 그것을 무시했다가 납득한 경험도 있

답 거기에 다른 도리가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얼어지면 얼어진 자리를 딛고 일어나지 허공을 허우적대며 일어나는 건 아니듯이, 마음자리에서 일어나 의정은 그 자리에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왔으니 상대가 있는 것이니 나오질 않았다면 상대가 없고, 그냥 '무'입니다. 그래서 모두를 내 탓으로 돌리라고 하는 것인데 내가 있으니 부당함도 있는 것이지 내가 없다면 부당함도 '무'이겠지요.

공부하다가 생기는 의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자리에서 나온 것이니 내 자리에서 풀어야지 누구에게 풀었습니까. 실족 제3자한테 물어서 답을 얻고자 한들 그것은 '내 배가 고르니 내 대신 밥을 먹어 달라'는 것과 하등 다를 바 없습니다.

의정은 내 속에서 나온 것이니 나온 그 자리에 되놓고 거기서만 답이 나올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이 답답한 속을 누구에게 물어보냐? 어떤 책을 보아야 하나? 하자 마시고 그 답답한 것까지도 다 마음자리에서 그렇게 한 것이니 해답도 그 자리에서 밀려 놓고 거기서 풀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부야 빨리 됩니다. 또 그래야 한가지 수학이 풀리니 한가지 수학이 풀리는 도리를 차츰 알게 됩니다.

질문이라는 것도 역시로 지어서 하는 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그런 알음알이를 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의정 자체가 진짜 자기 것일 때 해답도 진짜 자기 것이 됩니다. 또 제 의정을 남에게 물어 답을 찾는 것은 애써 맛들을 둘러면서 빈 맛들을 물리는 것과 같습니다.

꿈과 사랑을 가르쳐주는 「어린이 불교성전」

「어린이 불교성전」으로 아이들에게 불심을.....



거리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밝고 맑은 모습을 볼때마다 '부처님 말씀을 저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할까?'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에게 꿈과 사랑을 가르쳐 주는 것, 인격형성의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나서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번에 출간된 '어린이 불교성전'은 우리 믿음의 뿌리요 불교의 미래인 어린불자들에게 바른 불교문화를 알게 하고 더 나아가 부처님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경전입니다.



어린이 불교성전

큰몸을 하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큰몸을 돌.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큰몸을 셋. 거룩한 스님께 귀의합니다. 큰몸을 넷. 여섯가지 바른 삶. 큰몸을 다섯. 다듬어 가꾼 믿음.



- 어린이 불자들의 필독서
 - 어린이 법회용
 - 어머니와 함께 보는 경전
- 정가: 9,000원

도서 **단이슬**
출판

서울시 중구 송파로 3가 38-22

책 구입처 단이슬·267·8101 법련사·733·5322, 723·0423 총판·운주사·720·9372~3, 735·9170 도서출판「단이슬」은 어린이 포교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려 합니다.